

2015. 12. 14. ~ 12. 20. 주간

64

VOL

#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작물 재배 동향

배 · 사과 2016년산 정식 의향

## 농작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채 · 과일 가격동향

## 전남 시 · 군 농정 동향

제주감귤보다 당도 높은 친환경 고품질 감귤 출하  
화훼농업 1번지 조성 향안 뜨거운 열정  
청정 무공해 고품 쌀 소비 촉진 운동 확산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국내 최초로 정원장미 신품종 개발  
절화용 작약 수확 후 관리 기술 관리  
겨울철 사료작물 배수로 정비 하세요.

## 정책 동향

가짜 백수오 사태, 그 후 8개월 무엇이 달라졌나  
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와 손잡고 쌀 생산 농가에  
도움의 손길

## 해외 농업정보

인도네시아 정부, 커피산업 보호 위한 커피 수입관세  
4배 인상 계획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2. 14.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7

- 기압골의 영향으로 22~23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많겠음

### ❁ 농산물 재배 동향 ..... 10

- 배, 내년 재배면적 올해보다 2% 감소 전망
- 사과, 내년 재배면적 금년보다 1% 증가 전망

###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 11

#### ▶ 과 채 : 백다다기오이 · 애호박

- 백다다기오이 : 작년보다 크게 높은 상품 100개에 65,000~70,000원으로 전망
- 애호박 : 작년보다 높은 상품 20개에 29,000~32,000원으로 전망

#### ▶ 과 일 : 감귤 · 단감

- 감귤 :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는데다, 저장성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낮은 900~1,100원/kg으로 전망
- 단감 :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5,000~17,000원/10kg으로 전망

## ❁ 전남 시 · 군 농정 동향 ..... 12

- ▶ 제주감귤보다 당도 높은 친환경 고품질 감귤 출하
- ▶ 장성군,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41명 배출
- ▶ 영광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 ▶ 화훼농업 1번지 조성 향한 뜨거운 열정
- ▶ 청정 무공해 고품 쌀 소비 촉진 운동 확산
- ▶ 담양군, 이제부터 최고품질 벼로 승부한다!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9

- ▶ 장흥군 중국 현지에서 특산물판매장 개설 수출 순풍
- ▶ 한우고기 해외수출 전남산이 물꼬
- ▶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독일 수출길
- ▶ 우리 프리미엄 농수산물 중국 수출 활로 확대

##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5

- ▶ 국내 최초로 정원장미 신품종 개발
- ▶ 절화용 작약 수확 후 관리 기술 관리
- ▶ 올해 전남 9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취득(DKFFAL)
- ▶ 겨울철 사료작물 배수로 정비 하세요.
- ▶ 자생식물 삼백초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 효과 밝혀내
- ▶ 흑색 맥주보리, 흑호 개발
- ▶ 국내 육성 팔레놉시스 자급 기반 다진다.



## ❁ 정책 동향 ..... 34

- ▶ 식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 ▶ 가짜 백수오 사태, 그 후 8개월 무엇이 달라졌나
- ▶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 ▶ 할랄식품 수출 정보 상담, 1899-0559로 문의하세요
- ▶ 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와 손잡고 쌀 생산 농가에 도움의 손길
- ▶ 한국농수산물대학, 농수산업 후계인력 양성 대학으로 착실히 정착

## ❁ 해외 농업정보 ..... 43

- ▶ 인도네시아 정부, 커피산업 보호 위한 커피 수입관세 4배 인상 계획
- ▶ 말레이시아, 육류 초과수요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2. 14. (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이번주 숏커버링으로 반등 하였으나 반등세가 한계에 다다르며 하락함. 주요 생산국의 생산 차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치열한 수출 경쟁 우려 전망에 하락 마감함. 아르헨티나 관세 감축 및 달러화 강세는 미국 옥수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미국가의 수확기가 곧 예정되어 있어 하락세 지속될 가능성이 전망됨.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쟁 약세와 아르헨티나 관세 감세, 통화 평가 절하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함.

##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6

##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2. 1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14)	1주일전 (1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6,800	36,800	37,000	41,400	42,127	↓11.1	↓12.6
	콩(백태)	35kg	147,400	147,400	146,400	139,000	187,000	↑6.0	↓21.2
	고구마(밤)	10kg	22,400	22,200	21,550	20,700	23,300	↑8.2	↓3.9
	감자(수미)	20kg	25,800	25,600	25,600	21,400	28,133	↑20.6	↓8.3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400	440	415	383	653	↑4.4	↓38.7
	양배추	10kg	3,700	3,700	3,900	5,000	7,687	↓26.0	↓51.9
	오이(다다기계통)	10kg	34,000	52,333	22,000	37,055	31,133	↓8.2	↑9.2
	애호박	8kg	26,600	33,000	18,850	25,800	21,793	↑3.1	↑22.1
	토마토	10kg	21,600	18,400	16,750	23,300	28,587	↓7.3	↓24.4
	무(가을)	20kg	9,000	9,200	8,950	9,600	11,977	↓6.3	↓24.9
	당근	20kg	25,000	24,800	27,000	16,750	24,167	↑49.3	↑3.4
	건고추(화건)	60kg	802,000	806,000	806,000	838,500	912,833	↓4.4	↓12.1
	풋고추	10kg	34,200	31,000	31,750	51,600	47,787	↓33.7	↓28.4
	마늘(난지)	10kg	57,400	57,000	56,000	33,800	36,600	↑69.8	↑56.8
	양파	20kg	34,800	35,000	31,900	10,400	16,843	↑234.6	↑106.6
	대파	1kg	1,930	2,100	1,750	1,570	1,772	↑22.9	↑8.9
	파프리카	5kg	18,600	19,000	13,350	23,100	25,488	↓19.5	↓27.0
	방울토마토	5kg	10,400	9,800	10,100	12,300	19,640	↓15.4	↓47.0
	수박	1개	16,400	14,600	7,500	11,700	11,947	↑40.2	↑37.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14)	1주일전 (1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과일류	사과(후지)	15kg	36,400	36,400	36,000	36,400	48,887	↑0.0	↓25.5
	배(신고)	15kg	43,600	43,600	41,900	33,800	41,867	↑29.0	↑4.1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4,000	534,000	532,000	514,000	558,333	↑3.9	↓-4.4
	들깨	45kg	418,000	418,000	418,000	421,500	396,233	↓0.8	↑5.5
	새송이버섯	2kg	8,600	8,400	8,400	7,050	8,168	↑22.0	↑5.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47	7,793	7,799	6,678	6,442	↑14.5	↑18.7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36	1,922	1,902	2,004	1,780	↑1.6	↑14.4
	닭고기	1kg	5,298	5,006	5,184	5,210	5,430	↑1.7	↓2.4
	계란(특란)	30개	5,258	5,571	5,329	6,008	5,628	↓12.5	↓6.6
	우유	1리터	2,550	2,550	2,550	2,546	2,390	↑0.2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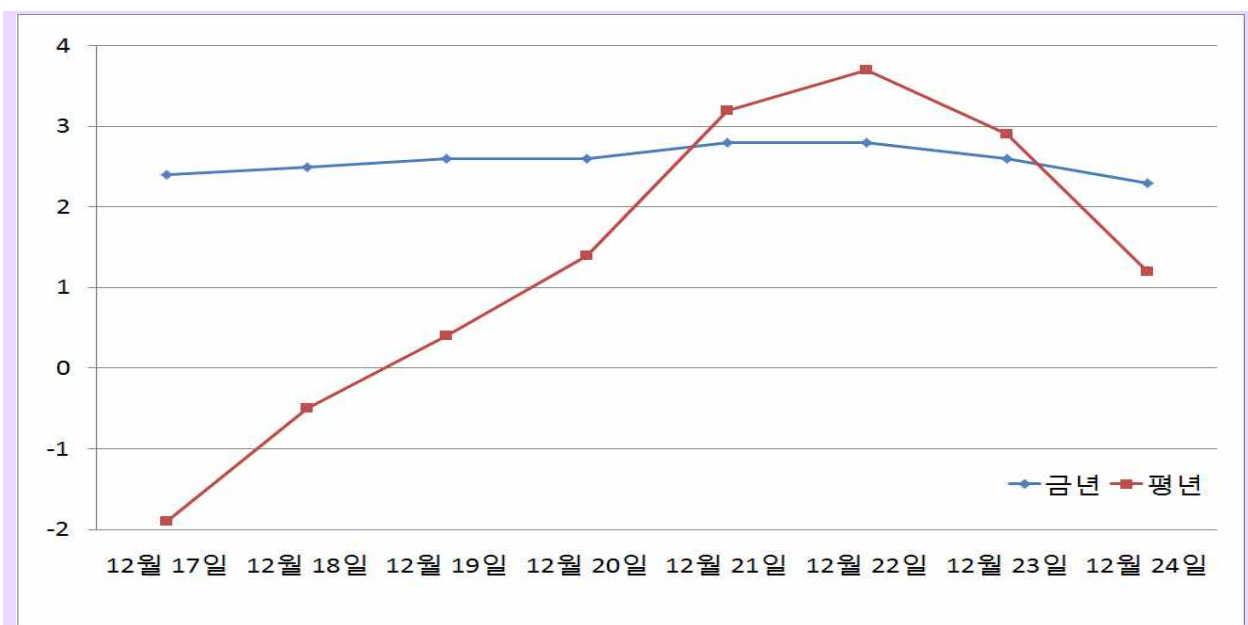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9	2.6	1.3	7.0	7.6	-0.6	0.8	-1.4	2.2	0.8
12. 10.(목)	0.5	2.4	-1.9	3.0	7.2	-4.2	-2.0	-1.6	-0.4	0.8
12. 11.(금)	2.0	2.5	-0.5	6.0	7.4	-1.4	-2.0	-1.5	-0.5	0.9
12. 12.(토)	3.0	2.6	0.4	7.0	7.6	-0.6	-1.0	-1.3	0.3	1.0
12. 13.(일)	4.0	2.6	1.4	8.0	7.7	0.3	0.0	-1.4	1.4	0.9
12. 14.(월)	6.0	2.8	3.2	9.0	7.8	1.2	3.0	-1.2	4.2	0.9
12. 15.(화)	6.5	2.8	3.7	10.0	7.8	2.2	3.0	-1.3	4.3	0.8
12. 16.(수)	5.5	2.6	2.9	7.0	7.6	-0.6	4.0	-1.4	5.4	0.8
12. 17.(목)	3.5	2.3	1.2	6.0	7.3	-1.3	1.0	-1.6	2.6	0.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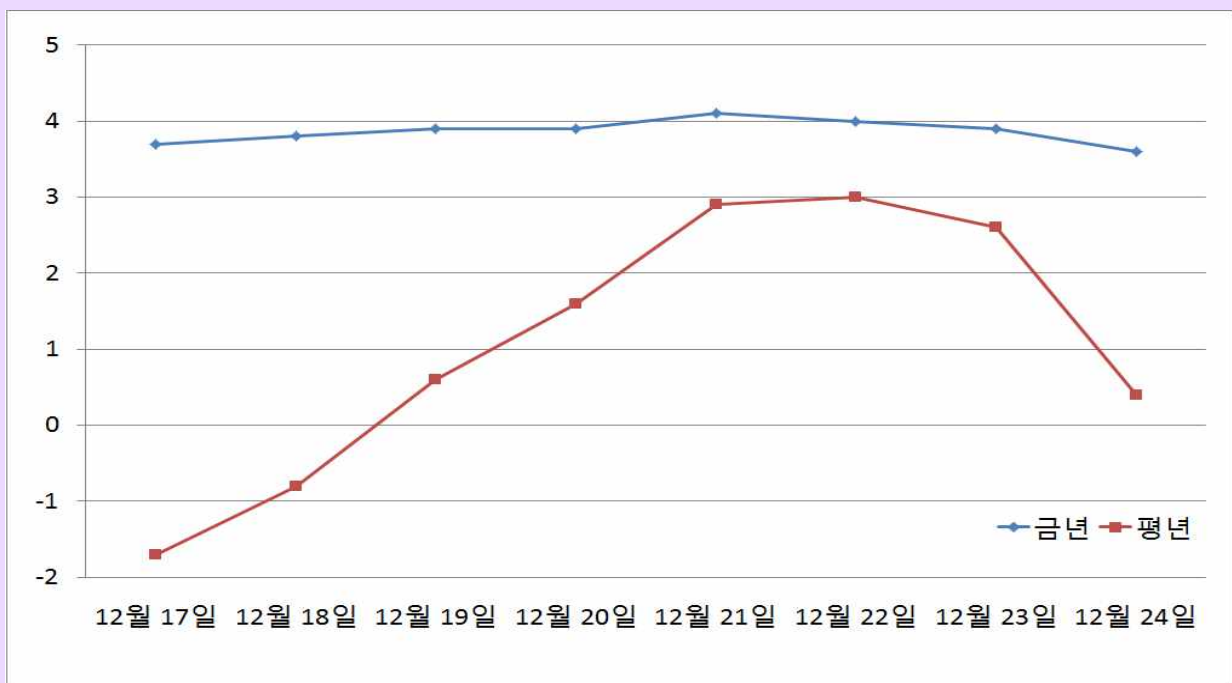


<평균 기온(℃)>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9	3.9	1.1	7.9	8.5	-0.6	2.0	0.4	1.6	0.7
12. 10.(목)	2.0	3.7	-1.7	4.0	8.3	-4.3	0.0	0.2	-0.2	0.7
12. 11.(금)	3.0	3.8	-0.8	7.0	8.4	-1.4	-1.0	0.3	-1.3	0.7
12. 12.(토)	4.5	3.9	0.6	8.0	8.4	-0.4	1.0	0.4	0.6	0.8
12. 13.(일)	5.5	3.9	1.6	9.0	8.6	0.4	2.0	0.4	1.6	0.7
12. 14.(월)	7.0	4.1	2.9	10.0	8.7	1.3	4.0	0.6	3.4	0.6
12. 15.(화)	7.0	4.0	3.0	10.0	8.7	1.3	4.0	0.5	3.5	0.6
12. 16.(수)	6.5	3.9	2.6	8.0	8.5	-0.5	5.0	0.3	4.7	0.6
12. 17.(목)	4.0	3.6	0.4	7.0	8.3	-1.3	1.0	0.2	0.8	0.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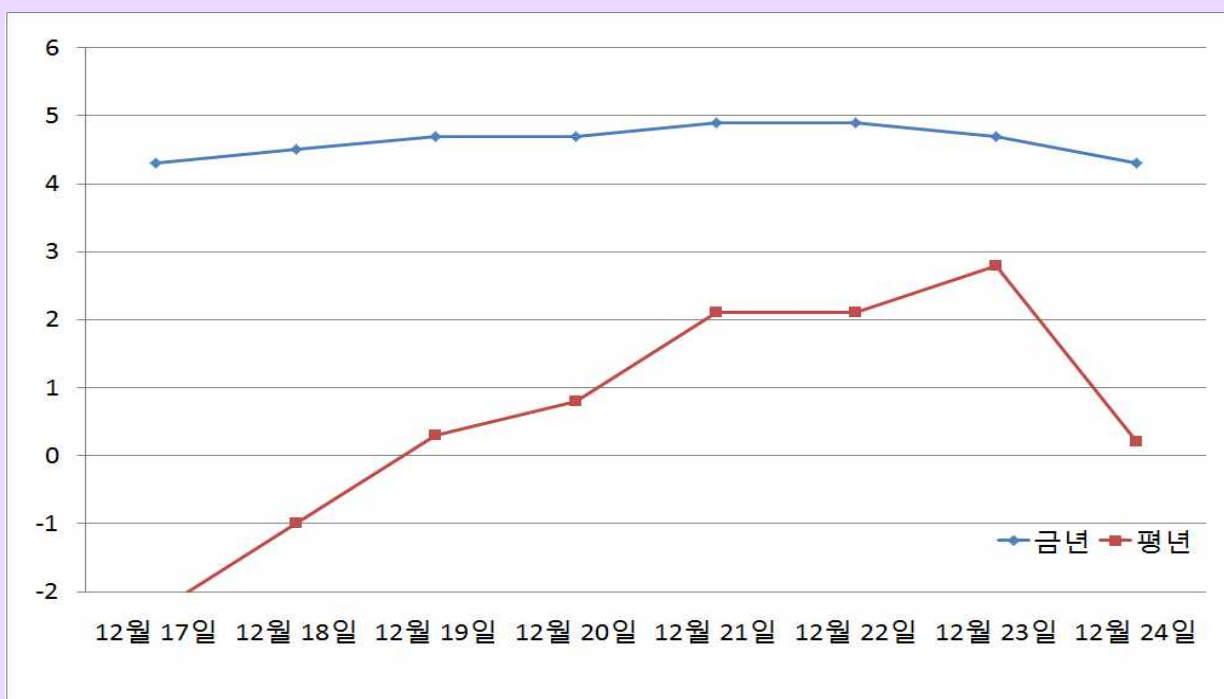
<평균 기온(℃)>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3	4.6	0.6	7.6	8.5	-0.9	2.9	1.4	1.5	0.4
12. 10.(목)	2.0	4.3	-2.3	4.0	8.1	-4.1	0.0	1.1	-1.1	0.3
12. 11.(금)	3.5	4.5	-1.0	7.0	8.3	-1.3	0.0	1.3	-1.3	0.5
12. 12.(토)	5.0	4.7	0.3	8.0	8.5	-0.5	2.0	1.5	0.5	0.4
12. 13.(일)	5.5	4.7	0.8	8.0	8.6	-0.6	3.0	1.6	1.4	0.4
12. 14.(월)	7.0	4.9	2.1	9.0	8.8	0.2	5.0	1.7	3.3	0.3
12. 15.(화)	7.0	4.9	2.1	9.0	8.8	0.2	5.0	1.7	3.3	0.4
12. 16.(수)	7.5	4.7	2.8	9.0	8.6	0.4	6.0	1.4	4.6	0.3
12. 17.(목)	4.5	4.3	0.2	7.0	8.3	-1.3	2.0	1.1	0.9	0.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 2. 농산물 재배 동향

### 배 · 사과 재배 동향

#### □ 배, 내년 재배면적 올해보다 2% 감소 전망

- 2016년 배 재배면적은 1만 2,410ha로 금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26,000ha 이후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지역별로는 강원·경기와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이 올해보다 각각 2%, 1%, 충청과 영남은 각각 3%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 □ 사과, 내년 재배면적 금년보다 1% 증가 전망

- 2016년 사과 재배면적은 성목면적이 소폭 감소해도 유목면적 확대 영향으로 금년보다 1% 증가한 32,000ha 수준으로 전망된다.
- 특히, 사과 유목면적은 신규식재, 과원갱신은 물론, 포도 폐원신청 농가가 일부 사과로 작목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5% 증가할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 채** : 백다다기오이 · 애호박

○ ( 백다다기오이 )

-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기상 악화로 출하가 원활하지 못해 작년보다 크게 높은 상품 100개에 65,000~70,000원으로 전망

○ ( 애호박 )

-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상품 20개에 29,000~32,000원으로 전망

**과 일** : 감귤 · 단감

○ ( 감귤 )

- 12월 노지온주의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는데다, 저장성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낮은 900~1,100원/kg으로 전망

○ ( 단감 )

- 12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5,000~17,000원/10kg으로 전망
- 상순에는 품질이 낮은 단감의 출하로 가격 상승폭이 작겠으나, 이후 품질이 높아지면서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제주감귤보다 당도 높은 친환경 고품질 감귤 출하

- 완도군 소안도 감귤...당도 높고 맛이 탁월해 인기 -

- 탁월한 맛과 풍미를 가진 새콤달콤한 완도군 소안도 노지감귤이 이번 달부터 본격 출하 된다.
- 소안도 감귤은 일조량과 강수량이 많고 가을철 일교차가 커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새콤달콤한 맛이 뛰어나다.
- 올해 소안도 감귤 평균 당도는 11브릭스로 제주 감귤 9.7 브릭스보다 1.3브릭스 더 높게 나타났다.
- 소안도 감귤 올해 생산량은 50톤이며, 10kg 한 상자에 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 또한 다른 지역의 감귤에 비해 25일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
- 제주의 전유물로만 생각되었던 노지감귤은 1972년 2농가가 소안도에 자가 소비용 재배를 시작으로 현재 약 10ha 35농가로 확대 재배되고 있다.
- 문부군 노지감귤연구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노지감귤을 친환경농법으로 육성하는 전문 기술교육과 친환경농자재 제조 기술을 농가에 전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감귤현장 기술지원과 명품 감귤 생산을 위한 품질 고급화 기술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완도군



## ■ 장성군,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41명 배출

- 9일 농산물 가공창업 심화반 수료식...가공 능력과 경영 마인드 갖춘 인력 양성 -
- 전남 장성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능력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4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농업인회관에서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교육 수료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가공창업 심화반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가공창업 심화반은 1·2기 농산물 가공창업 입문반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13회 52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 교육은 가공창업기초 교육과 연계해 가공현장에서 바로 접목·활용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농산물가공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경영자 마인드 함양교육을 비롯해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건조·분말 및 농축·추출법, 당과 등 제도가공 기술교육 등을 실시했다.
- 군은 내년부터 심화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센터 내의 가공시설을 활용한 잼과 주스, 분말·환, 조청 만들기 등의 제도가공실습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정착을 위해 창업보육과 코칭, 가공기술 이전 등 농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유두석 군수는 “이번 수료증은 창업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교육과정 중 70%인 36시간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만 주어지는 의미 있는 수료증이다.”며, “앞으로도 농산물가공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장성군



## ■ 영광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 신동진, 수안 2개 품종 선정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신동진과 수안벼 2개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영광군을 비롯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품종 선호도를 반영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선정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은 지역 재배여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쌀 품질 고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한편, 영광군 농협통합RPC에서는 2016년산 자체 매입품종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신동진, 수안, 수광, 삼광, 해품, 새일미(일미) 7개 품종을 선정하고 농업인들과의 계약 재배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매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선정과 관련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영광군은 2모작이 많아 고품질 쌀이며 수확기가 빠른 「수안」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벼를 선정하였고 특히, 농협통합RPC 자체수매 품종인 「해품」벼는 벼 흰빛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으로 묘량, 군서 등 상습 피해지역과 계약 재배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영광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배관리 교육 등 농업인 지도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 ■ 화훼농업 1번지 조성 향한 뜨거운 열정

- 강진군, 화훼재배 농업인 등 30여명 선진 현장교육 나서 -

- 사람의 마음까지 움츠리게 하는 동절기임에도 화훼농업 1번지 조성을 위한 강진군의 열정이 식을 줄을 모른다.
- 일반 경종농업과 달리 화훼재배농가는 바쁜 시기임에도 앞선 재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선진 현장교육에 나섰다.
-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화훼재배농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와 이천시 화훼단지 등 화훼산업 선진 현장을 방문해 선진 기술을 체험했다.
- 특히, 이번 선진 현장교육에는 절화수국 수출로 어려운 농업현실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를 주축으로 이뤄졌으며 화훼농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 최성주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는“군에서 화훼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선진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워 보급함으로써 강진군 화훼농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강진원 강진군수는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이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21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에서 수출농업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재배기술 향상에 대한 화훼농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선진 현장교육과 같은 기회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강진군이 화훼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은 전국 최고의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화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강진의 장미는 전국 생산량의 3%로 전남의 44%를 차지하며 수국은 전국의 28%, 전남의 70%를 생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 청정 무공해 고품 쌀 소비 촉진 운동 확산

-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 삼시세끼 운동 추진 등 -
- 고흥군의 청정 무공해 고품쌀 소비 촉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군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번 교육은 다양한 우리 쌀 활용법 교육을 통해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4명의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교육은 우리 쌀 가공 실습 12회, 떡 공예 실습 6회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고흥군 생활개선회 김연숙 연합회장은 “여성 농업인의 실생활에 유용한 음식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 우리 쌀 소비가 늘고, 고흥군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개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과정의 식품가공기술교육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농업의 6차 산업 발전 기반의 초석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군은 이외에도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군 산하 공직자들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삼시세끼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 삼시세끼(3기)운동은 세 끼니를 모두 고흥쌀로 먹기, 사주기, 나누기한다는 의미로, 식당에서는 고흥쌀 사용하기, 공직자 인사발령 시 축하화분 대신 쌀 나누기 등 관련 분야별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 ■ 담양군, 이제부터 최고품질 벼로 승부한다!

-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밥맛 시식회 가져, 최고품질 벼에 현품벼 선정 -
-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에 따르면 11일, 최고품질 벼 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고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쌀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농촌진흥청 관계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밥맛 시식회’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쌀인 현품, 해품 등 5개 품종과 우리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새누리벼를 동일한 포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배한 쌀로 외관품질과 밥맛을 비교했다.
- 이에, 시식회에서 제일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뽑힌 현품벼는 쌀 모양과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현품벼는 수확량도



많고 병충해에도 강해 재배하기 쉬워 앞으로 재배면적 증가가 기대된다.


- 행사에 참석한 쌀 품질 고급화 연구회 조상래 회장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부터 최고 맛있는 쌀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농촌진흥청 김보경 작물육종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욕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품질 벼 품종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대 보급에 전력을 다해 우리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현품벼 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기술지도를 다하는 등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담양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장흥군 중국 현지에 특산물판매장 개설 수출 순풍

-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9월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중국 절강성 장흥현에 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특산물의 중국 수출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중국 장흥현을 방문한 장흥군 실무협의단은 특산물판매장 개설 요건과 구체적 수출일정에 대해 현지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나눴다.
-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번 실무협의단은 장흥군 장흥군번영회, 기업인 협의회 주요 관계자들로 이뤄졌다.
- 양측 관계기관과 기업인들이 모인 실무회의에서 장흥군 측은 지역에서 생산한 건포고버섯, 무산김, 다시마, 미역, 매생이 라면, 작두콩차, 하늘수 막걸리 등 다양한 특산물을 선보였다.
- 직접 장흥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확인한 중국 관계자들은 일단 컨테이너 1대 물량의 특산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장흥군에서 생산된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그동안 실질적인 교류방안으로 거론되던 장흥군특산품판매장의 중국 현지 개설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 중국 장흥현은 특산품판매장 건물을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시에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제공할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 
- 판매장의 운영은 장흥군기업인협의회에서 직접 맡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중국에 불고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한국제품의 위상을 감안할 때 제품들이 순조롭게 판매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수출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장흥이 실질적인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며 이번 중국발 순풍을 타고 장흥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 ■ 한우고기 해외수출 전남산이 물꼬


-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친환경 고급육 사육기반 밑거름 -
- ‘생명의 땅 전남’에서 생산된 한우고기가 14일 첫 홍콩 수출길에 오른다. 지난 2000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국가 간 검역위생 협상을 통해 쇠고기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한 52마리와 (주)축림에서 도축한 8마리, 총 60마리를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포장해 14일 항공편으로 홍콩에 수출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품목 정밀검사를 모두 마쳤다.
- 국산 한우로는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되는 전남산 한우고기는 홍콩에 도착한 뒤 열흘 안팎의 현지 검역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 전남산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은 우리나라와 홍콩 간 검역위생 협상에서 1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한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은 구제역



검사를 시작한 지난 1934년부터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줄곧 유지해왔다.

- 특히 전남산 한우는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란 양질의 조사료로 사육돼 품질이 우수하다. 조사료 자급률 100%를 유지하면서 우수 한우 혈통을 보유해 도축 1등급 이상 출현율이 66.5%로 전국 평균(65%)보다 높다.
- 여기에 전라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축산 육성 정책을 추진, 1천 514농가가 친환경 축산물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고급육 한우 생산기반을 갖췄다.
- 이번에 수출하는 전남산 한우고기는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 사업단에서 확보한 물량이다.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등의 위생적 도축을 거쳐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에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마쳤다.
- 한우 13마리를 출하한 장성 오강섭 씨는 “우리 한우가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우고기 생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송아지 생산 공급을 위한 일괄 사육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적의 조사료 재배 여건을 기반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사업을 통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도 최선을 다해 전남산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독일 수출길

- 독일 바이어 제의 한 달만에 수출 성사 -

- 전라남도는 10일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이 독일 수출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 ‘한눈에 반한 쌀’ 독일 수출은 독일 교포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에서 옥천농협에 직접 수출을 제의한데서 비롯됐다.
- 제의를 받은 옥천농협은 독일 한인 유통업체에 수출하는 국내 대행업체에 시식용을 전달했고, 직접 ‘한눈에 반한 쌀’로 밥을 지어 먹어 본 국내 수출 대행업체 대표가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라며 바로 수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수출 제의에서 선적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성사됐다.
- ‘한눈에 반한 쌀’은 농식품부가 2003년부터 주최한 전국 고품질 쌀 평가 12대 브랜드쌀에 9회 선정됐다. 특히 2006년, 2007년, 2009년 3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밥맛과 품질에서 전국 최고 쌀로 자리매김해 수도권 등에 마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됐다.
- 이 때문에 옥천농협은 이번 독일 수출 외에도 올해 바이어의 요청으로 영국에 5톤을 수출했다. 최근에는 중국 쌀 수출 가공 공장으로 1차 선정돼 오는 26일 중국 검역단의 실사를 앞두고 있어, 최종 선정되면 중국으로의 쌀 수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해남 옥천농협의 쌀 수출은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전남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전남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협 전남지역본부, 수출 대행업체, 생산자 단체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 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담양 금성농협에서 2014년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1등을 수상한 대숲 맑은 담양쌀과 창평농협에서 유기농쌀을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 출처 : 전라남도

## ■ 우리 프리미엄 농수산물식품 중국 수출 활로 확대

- 33개 중국 농수산물식품 유통기업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우리 프리미엄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활로를 확대하기 위해 『제5차 對中 농수산물식품 수출 상담회』를 12.10.(목)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공동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 상담회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웨이하이 등 지역에서 중국의 농수산물식품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33개사 바이어들이 참가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동원홈푸드, 하림, 참프레, 마니커에프앤지, 성경



식품, 고려은단 등 90개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업이 참가하여 중국 바이어들과 1:1 매칭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홍삼, 김, 유자차, 비타민, 스낵류, 과일음료 등이 중국 바이어의 주요 관심품목이었다.

□ 최근 중국은 新중산층을 중심으로 안전하면서도 고품질인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한국드라마와 K-pop 등 한류 붐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 이번에 개최된 「對中 농수산물식품 수출 상담회」는 중국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중국 시장에 널리 알려서 중국 수출의 호기로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이번 행사와 같은 농수산물식품분야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新중산층으로 대변되는 중국 신홍계층들의 감성과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출활로 개척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국내 최초로 정원장미 신품종 개발

- 병에 강하고 꽃수가 많은 방향성 장미 2종 육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가든 조성으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원장미 2종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 없어 고가의 외국 장미를 수입하여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새로운 품종의 개발로 국내 장미원에서도 국산 정원장미 품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계 장미 시장은 약 2조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80억원 정도이다. 300여종의 품종이 매년 약 30만주가 식재되고 있으며 신·구 품종에 따라 로열티는 1~4달러 정도 지불되고 있다.
- 이번에 육성한 “그랜드마치”(전남교GR-3호) 품종은 화단용으로 분홍백색의 중형 꽃으로 검은무늬병과 흰가루병에 강하다. 신초수가 많으며 가지당 꽃수가 13화로 많고 수세가 좋은 품종이다. “프린스 가든”(전남교GR-8호) 품종은 분홍색 꽃으로 그랜드마치 보다 화폭이 2cm 정도 더 큰 품종으로 향기가 있으며 흰가루병에 강하고 가지당 꽃수가 12개로 많은 품종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연속해서 개화하는 품종이다. 농업기술원은 2품종을 2016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 정원장미 품종평가회에 2품종을 출품하여 세계적인 장미들과 품질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평가회에서 우수



품종으로 선발되면 해외 수출과 판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남농기원 원예연구소 기광연 연구사는 “세계적인 정원장미를 육성하여 국내 수요를 대처하고 해외 장미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 출처 : 전라남농업기술원

## ■ 절화용 작약 수확 후 관리 기술 관리

- 수확 후 저장방법, 보존제 처리로 농가 소득 안정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새로운 화훼 작목으로 재배면적과 국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절화용 작약의 수확 후 품질향상을 위한 보존제 처리 기술과 장기 저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작약은 대표적인 약용 작물로 알려져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절화용 작약은 꽃이 큰 겹꽃으로 전국적으로 약 27ha가 재배되고 전남은 37농가 23ha로 재배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약은 꽃을 수확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 내외로 채화, 선별, 저장 등 대부분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홍수출하로 가격이 하락해 재배 농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절화용 작약의 저장 기간은 약 2주일로 저장 기간이 짧고 저장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보존제를 처리하면 꽃의 수명이 약 8일 정도 연장되고 꽃의 크기가 커지는 등 품질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 또한 저장 방식을 건식 저장으로 개선하여 저장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나 각 작업의 노동력이 분산되어 재배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연구사는“그 동안 절화용 작약 재배농가의 큰 어려움이었던 수확 후 관리 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틈새 화훼류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화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 올해 전남 9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취득(DKFFAL)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농촌체험관광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결과 9개 농장이 신청하여 9개 농장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이번 품질인증은 전국에서 99개 농장이 신청하여, 일선 초등학교 현직 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올해 작년에 이어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응급처치교육 이수(대한적십자사)와 보험가입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의무화함으로서 안전관리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 도내에서는 금년에 담양 두리농원(김상식), 강진 뜨란에(대표 김운석), 보성 싱싱농원(정경모), 보성 우리원(전양순), 진도 승마클럽(김명주), 함평 만호방(강미정) 등 8개 농장이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나주 명하공방, 담양 다화림, 해남에 다녀왔습니다(대표 이승희) 등 4개 농장이 선정된 바 있다.

- 
- 농촌교육농장은 2007년부터 우리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까지 57개 농장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소재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발굴, 접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농장주에게는 농업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다.
  -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주5일 근무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 국민적인 여가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고, 먹고, 즐기는 단순목적의 관광에서 농촌테마를 중심으로한 체험형 관광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농촌교육 농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품질관리제를 도입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통해 우수한 농장을 선발하는 등 품격높은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농촌교육농장 대표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 겨울철 사료작물 배수로 정비 하세요.

- 배수로 정비로 습해 예방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가을에 파종한 사료작물이 잦은 비로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1월 기상이 평년보다 기온은 13.5℃로 2.6℃ 높고, 강우량은



92mm로 60mm가 더 많았다 또한, 광주 기상청 장기에보를 보면 12월~2월은 평년과 비슷한 기상이 되겠으나, 12월에 비가 다소 많겠다고 하였다.


- 겨울철 사료작물은 주로 논 재배를 하는데 물 빠짐이 나쁜 포장에서는 잦은 비로 수분이 많아 땅이 얼기 전에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하여 습해를 방지해야 한다. 땅이 질어 배수로 관리가 어렵다면 앞뒤 배수로를 깊게 내어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 물 빠짐이 나쁘면 특히 청보리와 호밀의 경우는 토양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뿌리가 상하고 심하면 부패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안전한 월동관리를 위해서는 배수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포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육이 좋지 않으면 2월 하순~3월 하순에 봄파종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 자생식물 삼백초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 효과 밝혀내

-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과 공동 연구... 인간 간세포실험 결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의과대학(민해기 교수팀)과 공동 연구로 국내 자생식물 삼백초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인간 간세포실험으로 밝혀냈다.
-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유전에 의한 간질환을 제외한 원인을 모르는 간질환의 90%를 차지한다.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는 실정이다.

- 
- 전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게는 6.3%, 많게는 33%, 평균 약 20%의 환자가 이 질환에 걸린 것으로 보고돼 있다.
  - 농촌진흥청은 수십 종의 후보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삼백초에 들어 있는 마나산틴A(manassantin A)와 마나산틴B(manassantin B) 성분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마나산틴A와 마나산틴B 물질은 염증 억제와 항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 생리 활성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정확한 효능 기전과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 인간 간세포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처리한 후, 마나산틴A 또는 마나산틴B를 주입한 결과, 염증 유발과 관련된 효소(JNK, NF-κB)의 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50%~70%(JNK 약 70%, NF-κB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나산틴A 또는 마나산틴B를 처리하면 지방간질환의 진행과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gp130) 발현량이 80% 이상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세포실험은 인간의 정상 간세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한 치료 효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이러한 연구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병기전인 인슐린 저항, 염증 연속 단계에 마나산틴A 또는 마나산틴B의 적용이 가능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이번 결과는 국내에 특허출원 됐으며, 2016년 상반기 중에 미국에서도 특허출원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 내분비

질환학회 2016년 연례학술대회에 논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 삼백초는 제주도와 남부 지방의 저지대 습지에 잘 자라는 식물로 뿌리, 잎, 꽃이 흰색을 띠고 있어 삼백초라 불린다. 전국적으로 21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차선우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건강기능성 인증과 의약품 원료의 소재화 연구를 더 강화해 우리 전통 약초의 과학화, 세계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흑색 맥주보리, 흑호 개발

-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 다량 함유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산 맥주보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산화 성분이 많은 흑색 맥주보리 ‘흑호’를 개발했다.
- 맥주 제조에는 이삭이 두 줄인 겉보리로 알맹이가 크고 전분 함량이 높으며 단백질이 적은 품종을 주로 이용한다.
- 농촌진흥청은 기존과 차별화된 국산 맥주보리를 개발해 보리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 최초로 흑색 맥주보리를 개발했다.
- ‘흑호’보리는 종실의 크기와 균일도가 우수하며, 발아율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아 맥주 원료로 이용하기에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 또한, 맥아수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콜박지수, 가용성 단백질 함량 등도 적절해 맥아 품질 기준에 알맞다.

- 
- ‘흑호’보리는 종실 안쪽까지도 검은색이 분포해 항산화 물질인 총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데, ‘호품’보리(2003년 개발한 국산 맥주보리,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음)보다 총 폴리페놀은 12%, 안토시아닌은 두 배 이상 높다.
  - 수량은 10아르 당 384kg(논 재배 기준)으로 ‘호품’보리와 비슷한 다수성 품종이다. 추위에 다소 약하므로 충남 이남의 1월 최저 평균 기온이 -4℃ 이상인 지역에서 재배하기에 알맞다.
  - 종자는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등 시범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일반 농가나 가공용 원료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김보경 과장은 “지역 특화 맥주 6차 산업화의 원료 제공으로 농가 소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 개발로 국내 맥주산업을 포함한 보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내 육성 팔레놉시스 자급 기반 다진다.**

- 도 농업기술원, 8일 태안 재배 현장서 육성 품종 평가회 실시 -

- 충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8일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재배 현장에서 농가와 화훼 관련 사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레놉시스 육성 품종 평가회를 실시했다.
- 이번 팔레놉시스 신품종은 지난 2008년부터 인공 교배를 시작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2011년에 선발된 것으로, 기내 증식 등 배양



과정을 거친 후 농가에 보급돼 재배에 성공하며 품종 경쟁력이 입증됐다.

- 이 품종은 크림색 바탕의 분홍색으로, 초기 생육이 빠르고 분지성이 뛰어나 볼륨감이 우수한 중형종이다.
- 또 생육이 강건해 재배기간이 짧고, 병해충에 강하며, 재배 중 고사율이 낮아 재배하기도 쉽다.
-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최원춘 박사는 “대부분의 종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팔레놉시스의 국산 품종이 개발돼 농가의 종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국산 종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내 팔레놉시스와 심비디움 등 양난 재배 면적은 총 27.7ha로 전국(108ha)의 22.9%를 점유하고 있으나, 종묘 대부분을 대만과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이 시급한 형편이다.

\* 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7. 정책 동향

### ◆ 식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 2015년 기후변화 유엔 컨퍼런스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 말까지 탄소중립성(carbon neutrality)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캐나다 컨커디어 대학교 연구진들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 정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그 해답이 조류(algae) 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함
    - 청색 조류의 광합성과 호흡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확보하는 파워 셀이 그것으로, 청색 조류에 의해 배출되는 전자를 트래핑 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 청색 조류(남조류 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해 있는 미생물로, 이 박테리아는 고등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산소를 생산하는 존재임
  - 이 발명은 현재 초기 단계로 상업화를 위해서는 파워 셀의 규모 관점에서 많은 연구 필요
    - 현재까지 광합성 파워 셀은 소규모로 존재, 애노드와 캐소드 그리고 양성자 교환막으로 구성되고,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청색 조류는 애노드 챔버에 위치하고 있음
  - 연구진들은 마이크로 광합성 파워 셀이 휴대전화기와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곧 실용화될 것이고, 모든 전력을 공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힘
- \* 출처 : Energyharvesting Journal

## ◆ 가짜 백수오 사태, 그 후 8개월 무엇이 달라졌나

### □ 아직 현재 진행형인 가짜 백수오 사태

#### ○ 건강기능식품과 정부에 대해 불신

- 식약처, 지난 5월 백수오 제품 207개 중 진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10개뿐임을 발표
- 사태의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식약처의 관리 소홀(26.8%), 제조사의 가짜 원료 사용(25.2%), 제품 인증 절차 부실(18.4%)의 순이었음

#### ○ 농촌진흥청 2차 전수조사 8개 도, 31개 시·군 160농가(80.1ha) 대상으로 실시

- 1차 전수조사 4.3%농가에 가짜 백수오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 (주산단지인 충북, 충남, 경북의 697농가 대상)
- 2차 전수조사 결과 백수오 진품 91.2%, 혼입 의심 6.9%(11농가), 이엽우피소 1.9%(3농가)로 조사


#### ○ 소비자단체 6개 홈쇼핑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이행

- 6개 TV홈쇼핑 백수오 제품 판매액은 약 2,500억원, 현재까지 소비자 환불 보상률은 15.6%에 그쳐

### □ 향후 대책

#### ○ 농촌진흥청

-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재검사 실시하는 등 순도 관리를 할 예정
-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수오 기원 정립과 유사 식물과의 성분 비교 분석, 백수오 가공제품에 대한 판별 기술 개발, 백수오 수집 유전자원을 이용한 표준 품종 개발 등 관련 연구 강화 방침

- 
-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구축 : 백수오 품종 개발과 종자생산 표준화를 통해 기원이 확실한 종자 보급 계획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엽우피소의 독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검사 결과는 최소 2년 후 나올 예정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 시행 예정 : 식품제조업체가 백수오 진위여부를 제조업체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 \* 출처 : 농촌진흥청

### ◆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 정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감축, 등 4가지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의 에너지 체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개설을 통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대학, 산업단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확대하고, 2025년부터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총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40%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용량 전력 송전 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HVDC를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세 번째, 시내버스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확산할 계획이다.
- 네 번째,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로 보급 확대하고,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신기술을 개발하려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할랄식품 수출 정보 상담, 1899-0559로 문의하세요

- 농식품부, 한식연에 할랄식품 수출 정보제공 기반 구축, 12.9부터 본격 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은 ‘할랄식품 수출 상담실’의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12월 9일 할랄식품 수출 상담실 개소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할랄식품 수출 상담실 개소식은 12월 9일 11시 30분부터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한식연 원장, 식품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식연 할랄식품 수출 상담실 앞에서 현판식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전문 상담인력 2명이 할랄식품 수출에 필요한 할랄인증 기준·절차, 할랄식품 시장 정보 등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외식기업들이 할랄식품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Q&A 코너\*에 질문을 게시하거나, 유선전화(1899-0559)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랄식품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 할랄식품 수출 정보제공 시스템(halal.kfri.re.kr) 내에 위치

■ 또한, 한식연 홈페이지에 할랄식품 수출 정보제공 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할랄식품 수출 정보제공 시스템은 한식연 홈페이지(<http://www.kfri.re.kr>) 내 전용 팝업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수출 정보제공 시스템에서는 주요 국가별 할랄인증 기준·절차, 주요 할랄식품 시장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식품·외식기업들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aT, KOTRA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할랄시장 최신 동향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상담실 개소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은 지난 6월말 농식품부가 관계기관, 식품·외식기업 등과 협력하여 수립한 할랄식품 발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식품·외식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할랄식품 수출 상담실 개소를 계기로 할랄인증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할랄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코셔인증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농식품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식연 할랄식품사업단을 통해 할랄식품 정보 제공에 더하여 식품·외식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할랄식품 전문가 양성 교육, 할랄식품 성분분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와 손잡고 쌀 생산 농가에 도움의 손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마트(대표 이갑수),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롯데마트(대표 이원준)와 함께 올해 쌀 풍작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대형마트 쌀 매장에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정부의 홍보 취지에 공감하여 금번 쌀 관련 홍보에 적극 참여하였다.
- 홍보물은 소비자의 쌀 구매가 농업인에게 힘이 되며, 쌀은 비만의 주범이 아니며,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소득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금번 홍보물은 전국 대형마트 403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 대형유통업체 담당자는 “방송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는데 작게라도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마음이 흐뭇하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업 후계인력 양성 대학으로 착실히 정착

- 졸업생 3,702명 중 2015년 85.3% 농수산업에 종사 -
- 2016년도 신입생 경쟁률 5.2:1로 역대 최고, 내신성적 평균 3.9등급 -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김남수, 이하 한농대)은 2015년 기준 3,015명의 졸업생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 입시 결과 경쟁률 5.2:1, 합격자 내신 평균 성적 3.9등급으로 역대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한농대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졸업생의 농수산업 종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 3,702명 중 85.3%인 3,015명이 농수산업에 종사 중이며, 2014년 가구당 평균 8,594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 한농대는 매년 졸업생 영농·영어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결과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기준.

○ 이는 같은 해 일반농가의 평균 소득인 3,495만원 보다 2.5배 높으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5,618만원보다 1.5배 높은 수치이다.

○ 학과별 가구 평균소득은 식량작물학과 7,742만원, 특용작물학과 5,425만원, 채소학과 6,538만원, 과수학과 6,146만원, 화훼학과 5,633만원, 축산학과 15,382만원, 대가축학과 9,586만원, 중소가축학과 18,670만원, 수산양식학과 14,408만원이다.

□ 한농대는 졸업 후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금년부터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농대 아카데미’를 운영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재학생 학부모 대상 승계교육을 실시했다.



-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한농대 아카데미는 농식품창업, 농식품가공, 축산가공스쿨과정을 개설했으며, 향후 과제별, 품목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졸업생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 과제별 : 창업, 농식품 가공, 수출, 농기계, 리더십, 농어장 경영실무
  - \* 품목별 : 토마토, 베리, 산란계, 번식우, 어류양식

- 승계농의 애로사항인 ‘부모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졸업을 앞둔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세무·회계 교육과 부모·자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교육도 진행했다.

- \* 졸업생 설문조사 결과, 정착 애로사항으로 영농자금부족(25%), 농지기반 부족, 문화생활, 기술경험 부족(13%), 부모와의 갈등(12%), 결혼(8%), 자녀 양육(3%)을 지적


-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한농대의 '1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총 2,032명의 지원해 평균 5.2:1의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 합격자 390명의 내신 평균 등급도 '15학년도 4.1등급 보다 높은 3.9등급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 경쟁률은 식량작물학과 6.0:1, 특용작물학과 7.1:1, 버섯학과 5.8:1, 채소학과 6.3:1, 과수학과 5.0:1, 화훼학과 4.0:1, 산림조경학과 6.6:1, 대가축학과 5.5:1, 중소가축학과 3.8:1, 말산업학과 2.8:1, 수산양식학과 4.7:1이다.

- 최종 합격한 390명 중 남성이 311명(80%), 여성이 79명이며, 전북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23%(9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지역별 합격자 분포 : 전북 91명, 전남 69, 경북 48, 경기 38, 충남 36

- '16학년도 합격생의 내신 성적 평균은 3.9등급으로 매년 합격생의 성적 등급이 높아지고 있다.



- 합격자 내신 성적 평균등급 : ('14) 4.1 → ('15) 4.1 → ('16) 3.9

□ 김남수 총장은 “한농대 지원자가 늘어나고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매년 상승되고 있는 것은 젊은 인재들이 농수산업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며, 농수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캠퍼스 전주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농대는 이러한 인재들이 성공적으로 농수산업에 정착하여 지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지원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8. 해외 농업정보

### ◆ 인도네시아 정부, 커피산업 보호 위한 커피 수입관세 4배 인상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커피산업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커피 수입관세를 4배 인상할 것으로 보임.
-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팅된 커피콩, 커피분말, 인스턴트나 믹스커피 수입업자들에게 지난해 보다 5% 인상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관세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이 더 부과될 것이라고 함.
- 반면 농업부는 2016년 1월부터 국가기준을 적용하여 저품질의 커피 생산업자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의 커피 생산국으로, 매년 약 7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하며 그 중 65%를 수출함.
- 한편, 인도네시아는 커피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핀란드에 비해 적은 양의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1년 간 1인당 평균 4.3kg를, 핀란드는 11.4kg를 소비하는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1인당 1.1kg으로 비교적 적은 양을 소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커피산업 보호정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커피콩이나 커피분말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또는 믹스커피 수입업자들의 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말레이시아, 육류 초과수요

- 말레이시아는 매년 20만~25만 톤의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 내 공급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
- 초과수요 발생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농장주들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농업기반산업부차관(다툽 타주딘 압둘 라만)에 따르면 페를리스 캉가(KANGAR, PERLIS) 지역에서는 약 5만 톤의 육류만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함.
- 2015년 12월 21일 페를리스에서 개최된 농민의 날의 연설에서 그는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축사육 촉진을 위하여 전국에 200~500 마리의 소, 물소, 염소를 사육할 수 있는 약 67개의 위성농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주 정부는 소, 물소와 염소사육을 위하여 8,000개의 방목지역에 대한 토지 제공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코코넛과 팜오일 농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통합 농장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가축업자 등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으며, 정부 관계자는 육류 초과수요 충족을 위하여 인도, 호주, 태국, 미얀마 등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 말레이시아의 육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나라는 한우의 할랄인증 추진을 통해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 진출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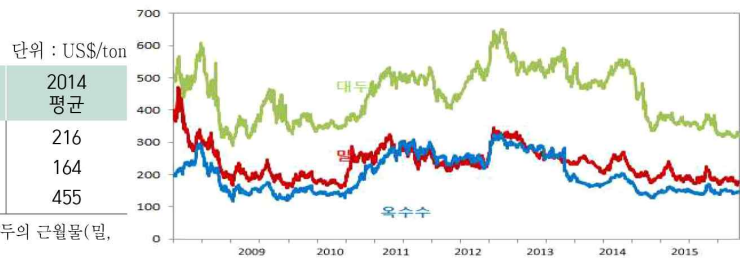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2. 14.(시카고 선물거래소)

## 비관적 수출 전망에 곡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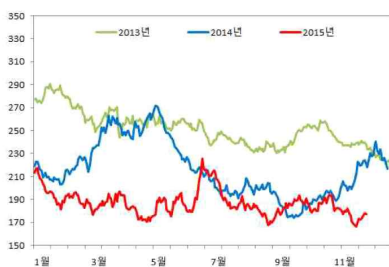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2.1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1)	2014 평균
밀	177.32	▼0.4%	182	216
옥수수	146.84	▼1.1%	144	164
대두	319.89	▼0.9%	319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6년 1월물) 정산가격임.



###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이번주 숏터버링으로 반등 하였으나 반등세가 한계에 다다르며 하락함. 주요 생산국의 생산 차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겨울 침체가 전망되고 있다고 Farm Futures Magazine의 선임편집장 Bryce Knorr는 전망.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치열한 수출 경쟁 우려 전망에 하락 마감함. 아르헨티나 관세 감축 및 달러화 강세는 미국 옥수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미 국가의 수확기가 곧 예정되어 있어 하락세 지속될 가능성이 전망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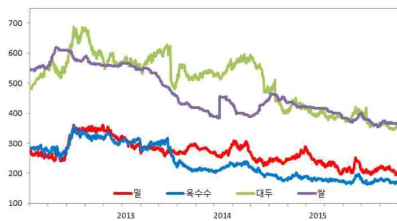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쟁 약세와 아르헨티나 관세 감세, 통화 평가절하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함. 브라질 정부는 곡물 수급 에이전시 Conab을 통해 2015/16 대두 생산 전망을 지난달 1억200만톤에서 1억250만 톤으로 확대 전망하였고, 5,750만톤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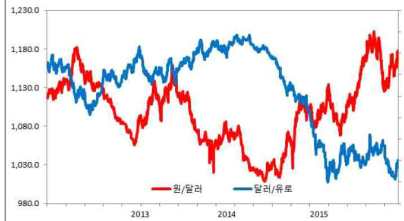
### 관련동향

- 주간 수출 강세로 옥수수 가격 상승
- 국제유가는 OPEC 생산 증가 소식, 미 쿠싱지역 원유재고 증가 전망,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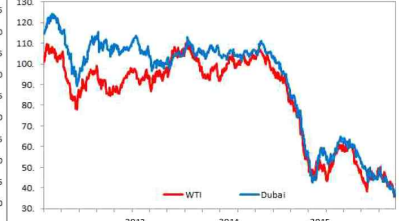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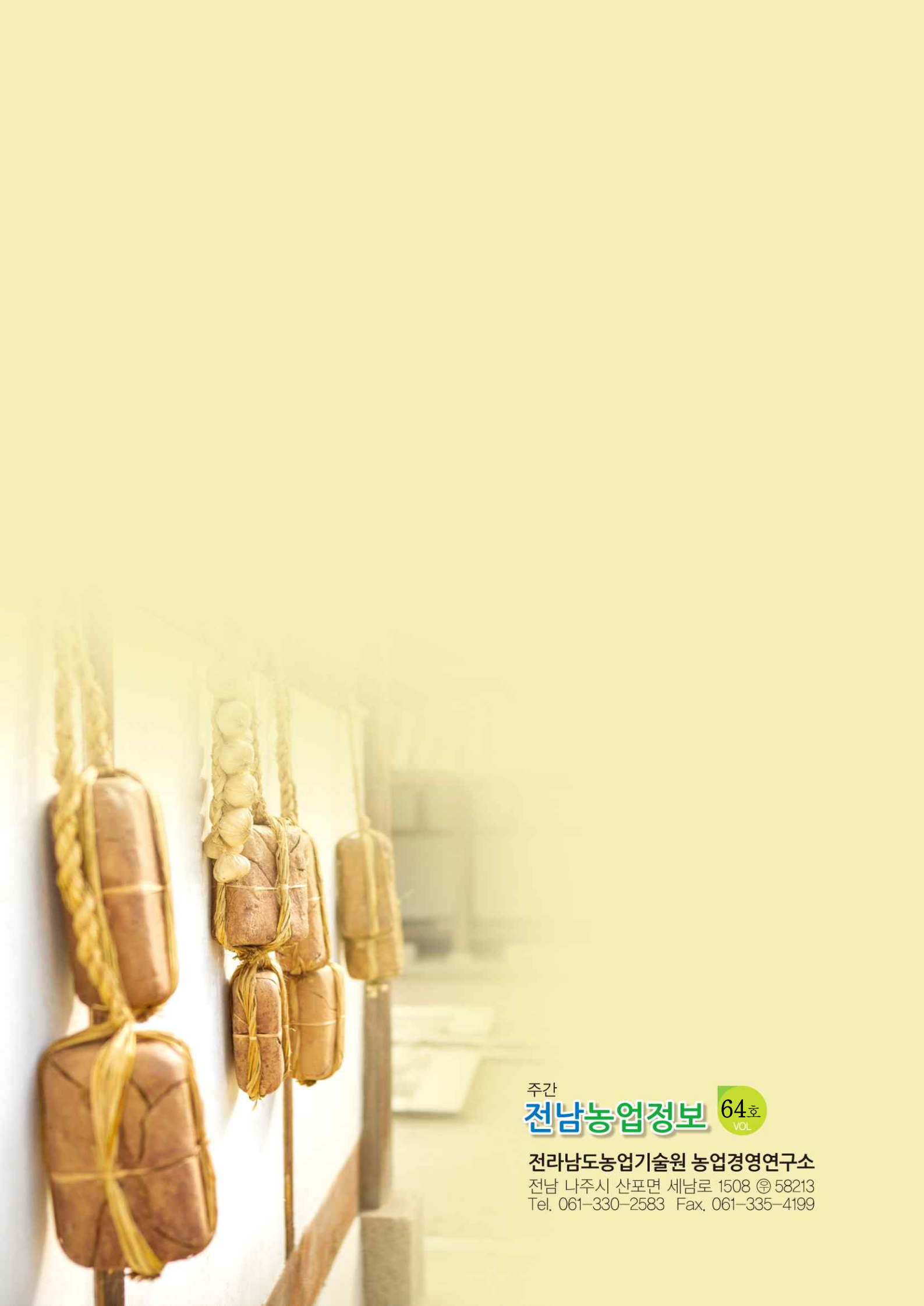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9	▲1.0%	환율	원/달러	1177.5	▼0.1%
	옥수수	173	▲1.2%		달러/유로	1.0945	▼0.7%
	대두	349	-	국제유가 (US\$/B)	WTI	35.62	▼3.1%
	쌀	360	▼1.4%		Dubai	36.2	▼0.8%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016년 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2.10(수출가격), '15.12.11(환율), '15.12.1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주간

**전남농업정보**

64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